

경제



지난 23일 오전 7시 첨단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조찬포럼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강한 중소기업으로 가는 길'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광주경제 발전 이끌어가는 '조찬 문화'

'조찬모임 붐' ... 올들어 3개 창립 총 6개

정보교환·네트워크 구축·노하우 전수

지난 23일 오전 6시50분 광주 첨단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구내식당. 산단 입주업체 CEO 40여명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아침 7시30분에 시작하는 조찬CEO포럼에 참석하고자 모인 것이다. 다인시스템 정승업 사장은 차기CEO가 될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

광주 경제계가 '조찬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주요 조찬 모임만 광주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중소기업어업종 광주전남연합회, 광주시관광협회 등 6곳이나 된다. 이 중 3개 모임은 올해 새로 생겼다.

광주의 조찬문화는 광주경총의 금요조찬연수회로부터 시작됐다. 1990년 6월1일 첫 모임을 시작한 금요조찬연수회는 지난해 7월 1000회를 넘기며 21년째 이어가고 있다. 21년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1시간30분간 열여섯 명을 아카데미다.

이날 강연은 중소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90분간 평균 수명 10.5년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수명을 늘리고 강소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비전과 과제

■광주지역 주요 조찬 모임

모임명	주최	개최일	장소	연락처
금요조찬연수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매주 금	무등파크호텔	062-654-3427
광주경제포럼	광주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매월 넷째주 화	리미디플라자호텔	062-350-5863
산학협동포럼	한국산학협동연구원	매월 셋째주 수	무등파크호텔	062-611-5990
CEO포럼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매월 또는 격월 정례회 예정	공단 회의실	070-8895-7925
광주문화관광포럼	광주시관광협회	매월 넷째주 수	리미디플라자호텔	062-224-4486
중소기업어업종 조찬세미나	중소기업어업종 광주전남연합회	매월 둘째주 화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062-956-7120

광주경총 회장을 지낸 염홍섭 서산 회장은 "금요조찬연수회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20년동안 이어온 전통과 권위의 명품포럼이자 시민공부방"이라며 "개인역량 개발은 물론 정보·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사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예찬했다.

금요조찬에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 배순훈 전 대우전자 회장, 함승현 전 감사원장, 이해인 수녀,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다녀갔다.

광주상의도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매월 넷째주 화요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997년 7월 창립한 이 포럼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가 강연을 주도하는 경영·경제분야 특화포럼이다.

산학협동연구원도 2003년부터 매월 한차례 산학협동포럼을 열고 있다. 이 포럼은 CEO와 교수가 한 자리에서 이론과 실재를 토론하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올해 3월 광주시관광협회와 광주문화관광포럼을, 4월 중소기업어업종 광주전남연합회가 어업종 조찬세미나를 만들었다.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도 산단 입주업체 CEO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23일 첫 CEO포럼을 열었다.

광주 조찬모임은 모두 오전 7시에 열리고 있다. 행사장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7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조찬 모임은 광주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좋은 정보를 주고 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노하우를 배우는데 효과적이다.

최종태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은 "조찬 모임은 기업인들의 눈을 깨우고 기업의 미래를 여는 '조찬경영'이라며 "조찬문화의 확산은 광주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카드사 "비밀번호 바꾸세요"

잇단 개인정보 유출 ... 해킹 비상

최근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잇따라 대량 유출되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의 비밀번호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도 고객 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여신금융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삼성카드, 씨씨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공지했다.

이처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이 고객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다른 사이트의 대량 해킹사태로 자사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에 국내 3대 포털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와 네이버에서 3천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규모의 해킹 사고를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싸이월드 등에서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 시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곤욕을 치른 현대캐피탈과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는 최근 다른 회사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해킹돼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나 다른 금융사와 같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도용을 통한 금융사고를 막고자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생일 등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문자나 숫자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유지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으며 자세한 요령까지 알려줄 예정이다.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하나SK카드도 최근 포털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고객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연합뉴스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3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큰 전문직종, 현금수입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 단속과 세무조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다. 또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빼돌린 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변리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과징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관련인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리스크' 급상승

1년3개월여 만에 최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 1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국제금융센터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 24일 149bp(1bp = 0.01%)로 작년 5월 26일 153bp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이날 101b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직후 121bp로 급등했으며 이후에도 상승 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24일에는 하루 만에 9bp 급상승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날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개점 16주년 기념식



25일 개점 16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는 광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건현 대표이사,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했다. <광주신세계 제 제공>

광주신세계는 25일 개점 16주년을 맞아 광주시 서구 광전동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박건현 대표이사,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지법인으로서 사회공헌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 협력회사인

루이비통 코리아, 루비나, 동일방패에 대한 감사패와 시상금 전달했다.

또 지난 한 달동안 광주신세계 직원과 가족들이 만든 '아우인형' 전시회와 제작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시청했다. '아우인형'은 '아우르다' 또는 '아름다운 우리'를 뜻한다. 광주신세계는 100개의 아우인형을 유니세프를 통해 '임양'하고, 이를 통해 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 세계 어린이의 6대 질병 예방

접점을 돕게 된다.

조창현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개점 16주년 기념식은 임직원과 협력사, 자녀들까지 '한가족'이라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사, 고객 모두에게 항상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라지역 FTA활용 협의회 출범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2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라지역내 FTA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전라지역 FTA활용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광주본부세관이 FTA 집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업 지원 노후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일 한-

EU FTA,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현재까지 인증수출자 지정현황과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FTA 지원사업 및 추진계획 발표, FTA활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방안을 토의했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광주·전남북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하고 8월 현재 이 지역에서 EU지역으로 수출하는 142개 업체중 73개 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51%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 '유망 中企' 13개 선정

경영자금 5억원 지원

광주시는 15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내 13개 기업을 2011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은 무등, 이노센코리아, 우리로 광통신, 한국정밀, 삼성스텐레스상공, 무등기업, 에프엔엔, 피피아아, 한국스치로폴, 신우텍, 링크라인이앤씨, 씨엠텍, 한국O&S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5억원 한도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2년 동안 3.5%~4%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동시에 자금 및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45

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37개 기업에 93억8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64.58 (+9.80)
▼ 코스닥지수	471.50 (-2.79)
▲ 금리 (국고채 3년)	3.46% (0.00)
▲ 원·달러 환율	1086.40원 (+4.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무등빌딩 임대층 내역 (분할가능)

- 지하 2층 397평
- 지상 2층 332평
- 3층 369평
- 10층 331평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2평/2층
희망업종 금융·증권
(즉시입주, 전액보증금가능)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